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2년 1월]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2. 2. 10

목 차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1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2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4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7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 2021년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규모 4300조원

-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4300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시장규모도 300조원을 돌파했으며, 한국 가상자산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 연평균 20%씩 성장할 경우 2026년엔 100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 출처 :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4300조원' ... 급성장 추세(내일신문 김영숙 1/26),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2473

- ▶ 지난해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업자 거래플랫폼에서 일일 거래대금은 10조 원 이상으로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했으며, 이러한 가상자산시장의 급성장을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참여 때문으로 분석함.

□ 가상화폐 시가총액 2년 연속 200%대 증가

- 연합인포맥스가 전 세계 가상화폐 데이터 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의 API데이터를 취합한 결과, 2021년 말일 기준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천607조원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년대비 214.8%급등한 수치로, 2020년에도 275.5%증가한 것을 반영하면 2년 연속 200%대 성장을 이뤄냄

* 출처 : 지난해 세계 가상화폐 시총 200%대 증가...거래대금은 9%↑(연합인포맥스 서영빈 1/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1927>

- ▶ 일평균 거래대금은 153조 3천95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9.4%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116.3% 상승세에 비해 다소 하락한 수치임. 메타버스 등 디지털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조정국면이 지속되면서 거래량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냄.

□ 미국 가상자산 구인 수요, 전년대비 400% 증가

- 비즈니스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Linkedin)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링크드인 플랫폼을 이용한 암호화폐 시장 관련 구인 요청건은 2020년 대비 39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부문과 블록체인 기술 부문, 암호화폐 기반 플랫폼 부문 등으로 각 부문 모두 구인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고 밝힘.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더블록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최근 1년간 신규 채용건수가 모두 8400명 내외로 파악됨.

* 출처 : 지난해 미국 가상자산 구인 수요, 전년대비 400% 증가(디지털투데이 추현우 1/18),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861>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국 외

○ 미국

- 1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CBDC 보고서를 조만간 발간할 예정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이 발간하는 CBDC 보고서가 수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은 “CBDC 발행이 시급하지 않으며 최초의 CBDC 발행국이 될 필요는 없다”며 CBDC 도입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던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음.

* 출처 : 미국, CBDC 도입 결정 초읽기...“미·중 디지털화폐 패권 전쟁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 1/14),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11416005819561>

○ 중국

- 이데일리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중국이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알림. 중국이 지난 2014년부터 CBDC 발행을 준비해 왔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험의 장으

로 삼으려 한다고 전함.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상용화해 전세계 CBDC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며, 이를 통해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어 달러 패권에 맞서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전망함.

* 출처 : 전세계 CBDC 도입 급물살...암호화폐 대체 할까(머니투데이 박지웅 1/26),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12616130745559>

- 하나금융투자는 25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내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벤트와 연계해 시장이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디지털 화폐라고 강조함. 이미 디지털 화폐는 중국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디지털 위안의 사용성을 알릴 것으로 전망됨. 지난해 12월 기준 디지털 위안 거래금액은 16조원을 넘어섰다고 알려짐.

* 출처 : "베이징 동계 올림픽서 주목할 건 디지털 화폐...이유는"(이데일리 이지현 1/25),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33161>

○ 일본

- 스즈키 슌이치 재무대신은 “CBDC 검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개선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며 “CBDC의 해외 활용은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문제가 있고, 일본은행은 미국과 유럽 등 G7 중앙은행과 협력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력도 확보해 나갈 방침” 이라고 설명했음. 발행 시기와 관련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026년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음.

* 출처 : 일본은행 총재 “디지털 엔화 발행 2026년까지 결정할 것”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1/30)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221>

□ 국 내

-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는 통용 1단계 테스트에서 구현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결제 구현 및 신기술 적용 가능성 검증에 돌입했음. 이번 검증에는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컨센시스, KPMG, 에스코어 등이 참여함.

- * 출처 : 한국은행 CBDC, 지불결제 시장 판도 바꾸나...전문가들 “금융권 예상보다 빠를 것” (뉴스투데이 최정호 1/26),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0126500047>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국 외

○ 미국

-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를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가상화폐를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수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 출처 : “백악관, 가상화폐 규제...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 (매일경제 박용범 1/28),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1/88663/>

- ▶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버 범죄 위협과 관련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특히 가상화폐 등의 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나서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음. 이번 규제 방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금융규제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점에 미뤄 이번 규제안은 상당히 폭넓은 방안을 담을 것으로 추정됨.

-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여러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증권법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음.

- * 출처 :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 “가상자산, ‘증권’ 간주 가능성 여전히 있어” (코인데스크 코리아 함지현 1/11)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52>

- ▶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전반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떤 프로젝트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중이 이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을 경우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된

다” 고 말했음. 그는 이어 “가상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그 프로젝트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며 “대중이 투자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법적 공시를 거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엘살바도르

- 코인데스크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국채 발행 근거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림. 국채 발행이 이루어진다면 엘살바도르는 BTC(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이자, 비트코인 국채를 선보인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엘살바도르 정부는 “2022년 중 액면이자율 6.5%로 총 10억달러(약 1조197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힌바 있음.

* 출처 : 엘살바도르 정부, 비트코인 국채 발행 법제화 나서 (코인데스크 코리아 함지현 1/5),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44>

- ▶ 알레한드로 젤라야 엘살바도르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 국채 발행을 법제화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20건을 발의하겠다” 며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국채 발행에 대한 발표를 한 뒤 가상자산 유가증권, 이에 필요한 시장 규제를 위한 법안을 준비해왔다” 고 밝혔음.

□ 국 내

○ 한국

-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가계 자산 통계에 포함하기로 했음. 가상자산을 가계 자산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임, 전자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의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함.

* 출처 : [단독] “비트코인도 가계 자산”...올해 통계 조사 (전자신문 최다현 1/23),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95092>

- ▶ 통계청 관계자는 “각국 통계기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형태로 통계를 생산할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와 해외 동향 등을 파악해 볼 계획” 이라고 말했음.

- ▶ 통계청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하는 자산은 저축·주식·채권·전월세보증금과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를 포함하는 실물자산으로 나뉘지만 가상자산은 어느 한쪽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음.

- 금융위원회가 2월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증권형 토큰, 조각 투자 등 가상자산 투자 행위나 신종 투자 상품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NFT, 증권형 토큰,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음.

- * 출처 : 금융위, NFT가 증권인지 따진다...2월 증권성검토위원회 운영 (코인데스크 코리아 전지성 1/26)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39>

- ▶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여러 디지털 투자 수단이 나타나서 증권이나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점점 경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자본시장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음.

- ▶ 전형적 NFT는 투자자와 투자 대상이 1대1 관계라서 일반적으로 증권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으나, 분할 발행과 복수 발행 사례가 늘고 있어서 NFT의 특수성이 투자 결정에 중요하지 않다면 증권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6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지목하면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법과 더불어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고 의견을 밝혔음.

* 출처 : 나재철 금투협회장 “가상자산 사업, 규율 정비 선행돼야” (이데일리 김윤지 1/2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22166632201656&mediaCodeNo=257&OutLnkChk=Y>

- ▶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 AI의 금융업무 접목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속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음.
-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대선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공식 공약을 발표해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음.
 - * 출처 : [가상자산 첫 대선공약] 李·尹, 비과세 상향·법제화 공감(연합뉴스 김유아 1/23),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2037500002?input=1195m>
 - ▶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음.
 - ▶ 두 후보는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공개(ICO · 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음. 현 정부에서는 첫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2017년 유사 수신이나 사기가 우려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음.
 - ▶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었음.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 국 외

○ 마스터카드

-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이번 계약에 따라 앞으로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대신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해 NFT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 출처 : 마스터카드, 코인베이스와 NFT 결제 거래 체결...가상자산 없이 신용카드로 NFT 상품 산다 (SBS Biz 임선우 1/19)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72243>

- ▶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 디지털지갑을 통한 기존의 복잡한 구매 과정을 간소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BBVA은행, 코먼웰스은행

- 스페인과 호주의 대형 은행들이 고객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음.

* 출처 : 호주·스페인 대형은행들,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잇따라 출시(글로벌경제신문 김선한 1/5),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195>

-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산 규모 2위인 BBVA는 고객들이 디지털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거나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으며, 호주 최대 은행인 코먼웰스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알렸음. 특히 코먼웰스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인 제미니와 제휴해 고객이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했음.

○ 터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국 통화인 리라화의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 터키인들이 리라화를 버리고 대신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출처 : "돈보다 비트코인이 안전"...암호화폐 사모르는 터키인들(한국경제 이고운 1/13),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52401>

- ▶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인엘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바이낸스를 비롯한 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라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한 하루 평균 액수는 18억달러로 급증했음.

○ FTX

- 글로벌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FTX가 20억 달러(약 2조 4,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음. 펀드의 이름은 'FTX 벤처스'이며, ▲웹3.0 ▲블록체인 ▲결제 애플리케이션 등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산

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림.

- * 출처 :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FTX...20억 달러 펀드 조성 (디센터 장창현 1/17)

<https://decenter.kr/NewsView/260WH562LD>

o IMF

- IMF는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 이전에는 BTC(비트코인), ETH(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주식과 연관성이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음.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두 자산군의 상호연관성은 높아졌다고 알림.

- * 출처 : IMF "가상자산, 코로나19 이후 주식과 연관성 높아졌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범수 1/13)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92>

- ▶ IMF는 두 자산군의 상호 연관성이 증가한 원인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 도입을 늘린 것을 꼽았음. 코로나19로 중앙은행이 자본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자 개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났는데,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 주식과 함께 주요 투자 수단으로 편입됐다는 설명임.

o 구글

- 메타와 트위터 등 경쟁사가 가상화폐와 메타버스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구글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 출처 : 구글, 블록체인 기술 본격화....사내 전담팀 꾸려 (더데일리포스트 김정은 1/20),

<https://www.thedaily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85780>

o 인텔

- 지난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며 반도체 투자 확대를 선언한 미국 인텔이 가상자산 채굴에 특화된 주문형 반도체(ASIC)를 출시할 예정임.

- * 출처 : 美 인텔, 가상자산 채굴용 전용 프로세서 다음달 출시(파이낸셜뉴스 박종원 1/20),

<https://www.fnnews.com/news/202201201615272809>

- ▶ 현재 가상자산용 ASIC 시장을 장악한 기업은 중국의 비트메인임. 인텔은 지난 2018년에 고효율 가상자산 채굴 프로세서 관련 특허를 취득했음.

○ 소프트뱅크

- FTX US는 26일(현지시간)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통해 4억 달러(약 4800억원)를 조달했다고 밝혔음. FTX US는 이번 투자 라운드를 통해 80억 달러(약 9600억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음.

* 출처 : 소프트뱅크, 암호화폐 거래소 FTX US 투자 (더그루 홍성일 1/27)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30815>

- ▶ 이번 투자에는 소프트뱅크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 패러다임, 멀티코인 캐피탈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음. FTX US는 투자금을 바탕으로 이용자 확대, 신규 사업 라인 론칭 등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알렸음.

○ 메타

- 현지시간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타는 가상자산 개발 프로젝트 '디엠 어소시에이션'을 청산한다고 알렸음. 미국 가상자산 친화적 은행 실버게이트 캐피탈에 2억달러(약 2400억원)에 매각한 것임.

* 출처 : [글로벌] 페이스북, 가상자산 사업 매각...'디엠' 2억달러에 팔렸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93672>

- ▶ 각국 정부는 메타의 가상자산이 국가의 금융 생태계에 미칠 영향력과 돈세탁 수단 등을 우려했으며, 이에 따른 잦은 규제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비트노보

- 스페인 최고의 비트코인 결제 플랫폼 중 하나인 비트노보(Bitnovo)가 2022년 암호화폐 ATM 100대를 설치하기 위해 유럽의 대표적인 전자부품 공급사인 유로코인(Eurocoin)과 제휴했다고 유투데이가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출처 : 스페인, 올해 비트코인 ATM 100대 설치 예정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블록체인밸리 주은혜 조해리 1/23)

<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65#0AXD>

- ▶ 스페인이 ATM 100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보임.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 ATM은 비트코인 외 이더리움(ETH), 테더(USDT), 모네로(XMR)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 내

○ 유진투자증권

- 유진투자증권은 3일 ‘가상자산군 편입 및 운용 전략’ 보고서를 통해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은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짚었음.

* 출처 : 유진투자증권 “새해,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 포함할 때 됐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 1/3)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116448>

-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교직원공제회가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기금, 보험사 등 대형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음.
- ▶ 또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는 다르다”고 강조했으며, 그는 “자산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제쳐두고 과거 가격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미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은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금융권이 NFT(대체불가토큰)를 접목한 다양한 실험에 나섰다. NFT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고객이 직접 NFT를 발행하는 서비스를 내놓는가 하면, 마케팅 수단으로 NFT를 활용하는 곳도 나타남.

* 출처 : 보관부터 직접 발행 서비스까지...금융권 NFT 실험 본격화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1/6)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834>

- ▶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인 '한국디지털에셋'에 투자에 나선 KB국민은행

은 지난달 NFT를 비롯 가상자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Multiasset Digital Wallet)' 시험 개발을 마쳤으며, 이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충전, 송금, 결제 등이 가능토록 구현됨.

○ 미래에셋

-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가상자산 사업을 전담할 법인 신설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음. 현재 그룹 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증권 혁신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검토하고 있음.

* 출처 : 새 먹거리 찾아 나선 증권사...가상자산 사업 '영토확장' (데일리안 이충재 1/30)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78797/?sc=Naver>

- ▶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신년사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자산의 등장은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면서 “이런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달라”고 밝힌 바 있음.